정답	01 ③	02 ①	03 ④	04 ③	05 ①	06 ⑤	07 ④	08 ②	09 ③	10 ⑤
	11 ①	12 ⑤	13 ②	14 ④	15 ①	16 ①	17 ②	18 ⑤	19 ④	20 ②
	21 ⑤	22 ②	23 ④	24 ④	25 ①	26 ④	27 ③	28 ③	29 ⑤	30 ⑤
	31 ②	32 ⑤	33 ③	34 ③	35 ①	36 ⑤	37 ②	38 ④	39 ③	40 ①
	41 ⑤	42 ①	43 ③	44 ③	45 ④	46 ②	47 ④	48 ②	49 ④	50 ②

해설

[01~05] (듣기)

01 강연의 핵심 내용 파악하기 ③

짧은 국악인들이 ‘이질적인 악기들의 협연과 여러 장르와의 융합을 과감히 시도’했다는 점을 근거로 할 때, ‘실험 정신’이 가장 적절한 대답이다.

- 오답 피하기** >> ① ‘이타심’은 내용적으로 전혀 상관없다.
 ② ‘집중력’은 내용적으로 전혀 상관없다.
 ④ ‘절제하는 자세’는 내용적으로 전혀 상관없다.
 ⑤ 전통 음악과 서양 음악을 융합한다는 점에서 ‘순수 지향적 태도’는 내용과 상반된다.

02 내용 적용 사례 찾기 ①

『월인석보』에 나타난 변화는 첫째, 모음에 쓰인 동그란 점이 현재와 같은 짧은 선으로 바뀐 것이며, 둘째 ‘아래 야가 동그란 점을 붓으로 눌러 찍은 것처럼 왼쪽 위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간 모양으로 바뀐 것이다. 이를 적용하면 ①이 『월인석보』에 쓰인 서체가 된다.

- 오답 피하기** >> ② ‘샤’의 동그란 점이 현재와 같은 짧은 선으로 되어 있지 않고, ‘흙’의 ‘아래 야에 동그란 점이 그대로 쓰였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
 ③ ‘샤와 ‘과’의 동그란 점이 현재와 같은 짧은 선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
 ④ ‘과’의 동그란 점이 현재와 같은 짧은 선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
 ⑤ ‘흙’의 ‘아래 야에 동그란 점이 그대로 쓰였고, ‘과’의 동그란 점이 현재와 같은 짧은 선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

03 세부 내용 파악하기 ④

학생의 발표문에 원자 시계로 측정되는 24시간과 자구의 자전 주기 사이에 차이가 생긴다고 언급되어 있다. 그리고 이 차이는 원자 시계의 시각에 1초를 삽입하는 방식으로 해결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04 대담 내용 파악하기 ③

담당자의 말을 통해 정책 추진 목적(①)이 ‘글로벌 사회를 이끌어 갈 청소년 공동체 의식 함양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담당자는 추진 사례(②)로 ‘국제 학술 교류 행사’를, 정책 추진의 어려움(⑤)으로 청소년 국제 교류를 담당할 전문가의 부족을 들고 있다. 진행자는 보완점(④)으로 취약 계층 청소년이 국제 교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05 말하기 방식의 적절성 판단하기 ①

진행자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라는 질문을 통해 공동체 의식 함양과 국제 교류의 상관성에 대한 궁금증을 제시하며 추가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그러면 다양한 교류 활동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라는 질문을 통해 교류 활동의 구체적 사례에 대한 궁금증을 제시하며 추가 설명을 이끌어 내고 있다.

[06~10] (쓰기)

06 연상한 내용의 적절성 평가하기 ⑤

짜 맞춤 기법과 조직의 화합을 연관하여 생각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그런데 목재의 연결이 조직의 화합이라면 목재가 개개인의 구성원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⑤처럼 장인을 구성원 개개인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히려 장인은 구성원 개개인의 화합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존재로 보아야 한다.

오답 피하기

- ① 짜 맞춤 기법과 대비하여 ㉠을 이해하게 되면, 쇠뿔은 목재 외의 것이 사용되었으므로, 외부의 개입으로 볼 수 있다.
- ② 서로 모양을 맞추는 정교한 과정을 견해를 주고받아 합의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 ③ 결합된 목재가 튼튼하다는 것을 조직의 강인한 결속력으로 보는 것은 자연스럽다.
- ④ 목재의 재질이나 만들고자 하는 제품에 따라 다양한 기법이 있다는 것은 구성원의 특성이나 조직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합의의 방식이 있다고 연상할 수 있는데, 이를 ‘조직의 특성’이라고 하여도 무방하다.

07 자료 활용하기 ④

(나)와 (다)에 언급하고 있는 ‘소리 탐지’나 ‘진동 탐지 센서’는 모두 누수되는 지점을 찾기 위한 방법이나 도구들이다. 따라서 누수를 찾기 위한 것들을 이미 누수가 진행된 곳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수도관의 부식을 막는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또한 부식 때문에 누수가 발생하는데, 누수가 있다는 것은 이미 부식이 일어났다는 것이므로 이를 막는다는 내용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08 개요 수정하기 ②

이 개요의 예상 독자는 지방 자치 단체의 정책 입안자이다. 따라서 활성화 방안에도 정책 입안자가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주민들의 참여율 저조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생활 체육 참여가 지역 발전에 미치는 영향’은 정책입안자가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이라 볼 수 없다. ‘지역 주민에 대한 홍보 및 캠페인 활동’ 정도가 적절하다.

오답 피하기

- ① ‘생활 체육에 대한 주민들의 무관심’은 ‘활성화 장애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한 수정 방안이다.
- ③ ‘생활 체육의 중요성’은 ‘생활 체육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으며, 하위

- 항목 역시 적절하다.
- ④ 예상 독자가 정책 입안자이므로 '다양한 생활 체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타 지역 다양한 생활 체육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를 활용하는 것을 적절한 방안이라 볼 수 있다.
 - ⑤ 글의 목적으로 '지방 자치 단체의 정책 수립과 지원 요청'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추상적인 내용인 '국민의 풍요로운 생활 도모'보다는 '생활 체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 촉구'로 바꾸는 것이 더 적절하다.

09 고쳐 쓰기 ③

뒤에 이어지는 내용에 '마음껏 연주할 수 있는 기타가 많다.'는 내용이 있으므로, ㉔에는 '악보를 읽을 줄 모르시나요?'라는 내용보다는 '혹시 기타가 없어서 걱정이신가요?' 정도의 내용이 더 어울릴 것이다.

- 오답 피하기** >> ① 주어 '소리샘'은 '샘'이 아니라 '동아리 이름'이므로, "소리샘은 ~ 샘이므로~"의 구조보다, "소리샘은 ~ 샘이라는 뜻으로~"의 형식으로 고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 ② '망서리다'는 잘못된 표현이다. '망설이다'가 바람직한 표현이다.
 - ④ '자율성이 책임 의식을 갖게 한다.'는 내용은 앞뒤 내용에도 어울리지 않으며, 동아리 부원 모집의 내용으로는 적절성이 떨어진다.
 - ⑤ 첫째 문단의 말미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라고 하였으므로, 구체적인 활동을 소개하고 있는 셋째 문단이 둘째 문단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문단의 순서를 바꾸는 것이 더 적절하다.

10 조건에 맞게 쓰기 ⑤

'마음의 평안'에서 정서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이 제시되었으며, '두 가지 기쁨을 주는 동아리는 소리샘뿐~'이라는 표현에서 다른 동아리와의 차이점이 드러났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서 '나, 이웃, 사회'로 나아가며 점층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오답 피하기** >> ① 다른 동아리와의 차이점만 제시되어 있다.
- ② 점층적 표현만 사용되어 있다.
 - ③ 정서적 도움만 제시되어 있으며, 다른 동아리와의 차이점이 아닌 공통점이 제시되어 있다.
 - ④ 정서적 도움만 제시되어 있으며, 마지막 문장을 점층적 표현이라 보기에는 애매하다.

[11~12] (어휘 · 어법)

11 어법의 이해와 적용하기 ①

〈보기〉의 설명은 이형태 중 하나의 형태소가 그 앞뒤에 어떤 말이 있느냐에 따라 둘 이상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이형태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의미나 기능은 같지만 앞뒤에 오는 말에 따라 그 형태가 달라지는 관계에 있는 이형태를 찾아야 한다. ①에서 '광주에'의 '에'는 앞말이 처소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이다. 반면에 '경주에서'의 '에서'는 앞말이 출발점의 뜻을 갖는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조사이다. 이처럼 '에'와 '에서'는 앞에 어떤 말이 오느냐에 따라 형태가 달라지는 이형태 관계가 아니라, 그 의미와 기능이 차이가 있는 별개의 형태소로 보아야 한다.

- 오답 피하기** >> ② '물감으로'의 '으로'와 '크레파스로'의 '로'는 둘 다 어떤 물건의 재료나 원료를 나타내는 격조사로 앞 말이 자음으로 끝나는 경우에는 '으로'를, 모음으로 끝나는 경우에는 '로'를 쓴다. 따라서 이형태 관계에 해당한다.

- ③ '탁구나'의 '나'와 '수영이나'의 '이나'는 둘 다 마음에 차지 않는 선택, 또는 최소한 허용되어야 할 선택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로 앞 말이 자음으로 끝나는 경우에는 '이나'를, 모음으로 끝나는 경우에는 '나'를 쓴다. 따라서 이형태 관계에 해당한다.
- ④ '받으면'의 '으면'과 '주면'의 '면'은 둘 다 일반적으로 분명한 사실을 어떤 일에 대한 조건으로 말할 때 쓰는 연결 어미로 앞 말이 자음으로 끝나는 경우에는 '으면'을, 모음으로 끝나는 경우에는 '면'을 쓴다. 따라서 이형태 관계에 해당한다.
- ⑤ '잡아라'의 '아라'와 '먹어라'의 '어라'는 둘 다 해라할 자리에 쓰여, 명령의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로 앞 말의 모음이 'ㅏ', 'ㅑ'와 같은 양성 모음인 경우 '아라'를, 'ㅓ', 'ㅕ'와 같은 음성 모음인 경우에는 '어라'를 쓴다. 따라서 이형태 관계에 해당한다.

12 어휘 이해하기 ⑤

〈보기〉는 하나의 단어가 여러 의미를 지녔을 경우 각각의 의미에 따라 여러 개의 반의어가 있을 수 있음을 설명한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가)에 들어갈 어휘는 '넣다'의 반의어여야 하므로 '넣다'를 대입했을 때 문장이 자연스러워야 한다. 이에 따라 '넣다'를 대입해 보면 ①, ④, ⑤가 자연스럽다. 한편 (나)의 '빼서'와 반의 관계에 있는 어휘 역시 대입했을 때 자연스러움을 기준으로 보면 ⑤의 '들다'만이 자연스러운 문장을 이루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⑤이다.

[13~16] (고전 소설)

13 서술상의 특징 파악하기 ②

지정된 부분에 나타난 서술상의 특징을 묻고 있다. [A] 부분을 보면 '차설'부터 서술자의 요약적 서술이 나타나고 이어 등장인물의 발화가 등장한다. 다시 요약과 대화가 이어지고 있다.

- 오답 피하기** >> ① 지정된 부분은 전지적 작가시점으로 서술되고 있다는 점에서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답이다.
 ③ 지정된 부분에서는 금방울의 활약을 통해 오히려 갈등이 해소되고 있다.
 ④ 배경에 대한 묘사는 없다.
 ⑤ 부정적 인물은 등장하지 않는다.

14 소재, 배경의 기능 파악하기 ④

소재나 배경의 작품 속 역할에 대한 물음이다. '집'은 금방울에 의해 목숨을 다시 얻은 장공 부인이 막 씨를 찾아가 형제의 의를 맺는 공간으로 설정되어 있다. 따라서 막 씨와 장공 부인의 갈등이 심화되는 공간이 아니다. 화해의 공간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 오답 피하기** >> ① '초막'은 초가집을 뜻하므로 막 씨의 처지를 보여 주는 공간이다.
 ② '항내'는 아궁이에서 견디고 나온 금방울의 향기로 신비한 모습을 보여준다.
 ③ '정문'은 막 씨의 효행을 기리는 문으로 사회적 보상의 역할을 한다.
 ⑤ '금령'은 금방울에서 바뀐 이름으로 장공 부부에 의해 존재 가치를 인정받았음을 보여 주고 있다.

15 외적 준거에 의한 감상하기 ①

작품에 대한 설명을 바탕으로 하여 감상할 수 있는가를 묻고 있다. 〈보기〉는 금방울이 시련을 겪고 변신하는 과정, 조력자로서의 모습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막 씨가 금방울을 손으로 누르고 돌로 깨는 것은 금방울에게 닥친 시련으로 보아야 적절하지 그의 변신을 돕는 행동으로 볼 수는 없다.

- 오답 피하기** >> ② 깊은 물과 아궁이에 집어넣는 것은 금방울의 입장에서는 시련의 과정을 보여 준다.
 ③ 막 씨가 버려도 계속 찾아오는 것은 금방울이 의지를 지닌 존재임을 보여 준다.
 ④ 새를 잡고 산을 평지와 같이 오르는 것은 금방울의 능력에 해당한다.
 ⑤ 보은초를 통해 장공 부인을 살려내고 있으므로 조력자로서의 역할이다.

16 사자 성어 이해하기

㉠에는 부인이 난중에 잃은 자식을 생전에 보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상황에 대한 한탄이 담겨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을 나타내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뼈에 사무칠 만큼 원통하고 한스러움’의 뜻을 지닌 ‘각골통한’이다.

- 오답 피하기** >> ② ‘구사일생’은 ‘아홉 번 죽을 뻔하다 한 번 살아난다.’는 뜻으로, ‘죽을 고비를 여러 차례 넘기고 겨우 살아남을 이르는 말’이다.
 ③ ‘사필귀정’은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길로 돌아감’이라는 뜻이다.
 ④ ‘순망치한’은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는 뜻으로 ‘서로 이해관계가 밀접한 사이에 어느 한쪽이 망하면 다른 한쪽도 그 영향을 받아 온전하기 어려움을 이르는 말’이다.
 ⑤ ‘연목구어’는 ‘나무에 올라가서 물고기를 구한다.’는 뜻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굳이 하려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17~20] (현대 소설)

17 서술상의 특징 파악하기 ②

‘마분지 조각으로 고깔을 만들어 쓰고, 무엇인지 종잇조각을 돌리고 있는 사나이 모양에도, 아이놈들의 앞장을 서서, 몽당수염 난 이가 신나게 부는 날리리 소리에도’에서와 같이 심표를 활용하여 긴 문장으로 여러 대상과 장면을 서술하고 있다.

- 오답 피하기** >> ① ‘소년(창수)’라는 한 인물을 중심으로 그의 내면을 서술하고 있다. 여러 인물의 내면을 서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③ 청계천 아이들이 ‘소년(창수)’를 놀리는 말과 ‘저보다 좀 큰 아이’가 ‘소년(창수)’에게 말을 건네는 것을 대화적으로 구성하고 있지만 이것을 통해 인물의 분열된 의식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④ 과거와 현재의 대비가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야기가 서술되고 있다.
 ⑤ (중략) 이전에는 ‘소년(창수)’가 도심의 풍경을 바라보는 장면, 이후에는 청계천 변 풍경을 바라보는 장면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빈번한 장면 전환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분위기도 긴박하다고 할 수 없다.

18 관점 적용 및 이해하기 ⑤

<보기>의 관점은 문학을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해석해야 한다는 반영론적 관점이다. 이와 같은 관점이 가장 잘 반영된 것은 이 작품에 당시 서울의 세태가 반영된 양상을 살피는 방식이다.

- 오답 피하기** >> ①, ②, ③ 작품의 인물 유형을 분류하는 것, 갈등을 축으로 주제를 파악하는 것, 작품의 구조적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반영론적 관점이 아니라 내재적 방식(혹은 구조적 방식)에 해당한다.
 ④ 창작 기법을 중심으로 작품을 분석하는 방법은 서사론적 방식에 해당된다.(물론 이 방법도 내재적 방식에 해당한다)

19 인물 이해하기 ④

‘저를 비롯한 아이는, 옆에 모여 선 그 애들뿐이 아니다.’를 통해 ㉠ 역시 ㉡에 해당되지만, ㉠이 창수(㉢)에게 말을 건네는 것을 통해 ㉠이 창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은 ㉢에게 비롯한 태도를 보이기도 하지만 관심을 보이는 인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 오답 피하기** >> ① ㉠과 ㉡이 ㉢은 조롱하지만, ㉢을 조롱하고 있지는 않다.
② ㉠은 ㉡과 같이 ㉢을 조롱하고 있지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③ ㉠이 ㉡에 기대어 ㉢에게 조언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⑤ ㉠, ㉡, ㉢ 사이에 갈등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니다.

20 외적 준거 활용하여 감상하기 ②

‘암만 좋은 구경이라두, 밤낮 본다면 물리고 만다’라고 혼잣말 하는 것은 마음 놓고 여기저기 도심을 활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나오는 자기 위로의 말이라고 볼 수 있다. 창수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도심 여기저기를 다니며 신문물을 접할 생각에 부풀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밤낮 본다면 물리고 만다’는 문장을 도시 문명을 비판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피하기** >> ① ‘창수’가 청계천도 서울의 일부이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직 그가 도시의 이면적 실상을 직시하지 못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라 볼 수 있다.
③ ‘창수’가 자전거 종소리에 놀라고 그것 때문에 놀림을 당하는 모습에서 도시 문명에 직면한 상황에서 불안정함을 보여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창수’가 질문에 선뜻 답하지 못하는 것에서 도시 문명에 놓인 인물이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를 엿볼 수 있다.
⑤ ‘창수’가 귀향하고자 하는 마음이 드는 것은 도시 문명이 매혹적 요소(꿈)가 있지만 삶의 안정성을 보장해 주지 않기 때문(현실)이라고 볼 수 있다. 즉, 꿈과 현실에서 오는 괴리가 귀향을 생각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21~24] (인문)

21 미루어 알기 ⑤

이 글의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이해를 묻고 있다. 귀납 논증은 수많은 사례들을 바탕으로 하여 전제가 참임을 밝혀내는 과정을 거치는데 전제가 없는 새로운 지식이 나타나면 논리적인 오류가 된다. 관찰한 여러 까마귀를 통해 까마귀는 검다는 전제를 파악하더라도 어느 시간과 공간에서 검지 않은 까마귀가 발견되는 순간 이 논증의 결론은 거짓이 된다. 따라서 정답은 ⑤다.

- 오답 피하기** >> ① 첫째 문단을 보면 연역 논증은 지식의 확장이 일어나지 않으며 귀납 논증에 의해 지식의 확장이 일어난다.
② 첫째 문단에서 귀납 논증은 전제가 참이라도 결론은 확실히 참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③ 둘째 문단을 보면 치밀하게 사례들을 검토하더라도 모든 사례들을 검토할 수 없다는 점에서 확실히 참이라고 할 수는 없다.
④ 마지막 문단을 보면 과학적 지식은 연역의 결과가 아니라 반증의 시도로부터 견여온 것이며 새로운 지식이기 때문에 연역의 결과인 것은 아니다.

22 핵심 인물의 견해 이해하기 ②

‘포퍼’의 견해를 이해하고 있는가를 묻고 있다. 마지막 문단을 보면 포퍼는 과학적 지식을 반증으로부터 견뎌온 것으로 규정하고, 참신하고 대담한 가설을 제시하고 그것이 거짓이라는 증거를 제시하려는 노력을 진행하라고 하였다. 이러한 시도에서 살아남는 것이 과학적 지식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포퍼의 견해에 가장 근접한 것은 ②이다.

- 오답 피하기** >> ① 둘째 문단을 보면 포퍼는 귀납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표명하고 있다.
③ 실패한 지식은 폐기될 뿐이다.
④ 수많은 반증을 견뎌야 새로운 지식이 될 수 있다.
⑤ 포퍼는 연역 논증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얻고자 하였다.

23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④

㉠은 귀납 논증을 보여 주고 있고 이 글의 (㉠)~(㉢)은 연역 논증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런데 이 글에 따르면 또는 21번 문제를 참고하면 새로운 지식을 도출하는 것은 귀납 논증에 의해서다. 따라서 ④에서 (㉠)~(㉢)은 연역 논증에 해당하므로 부적절하다.

- 오답 피하기** >> ① 귀납 논증은 반증이 되는 사례가 발견되면 거짓이 된다.
② ‘어떤 까마귀는 검지 않다’는 경험으로 확인하는 것이고, 귀납 논증의 과정 역시 경험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③ ‘모든 까마귀는 검다’는 ‘어떤 까마귀는 검지 않다’에 의해 거짓임이 밝혀지지만, ㉠의 귀납 논증을 거치더라도 참임을 밝힐 수는 없다.
⑤ 포퍼는 연역 논증을 통해 과학적 지식을 도출할 것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적절하다.

24 바꾸어 쓰기 ④

우리말을 한자어로 적절하게 바꾸어 쓸 수 있는가를 묻고 있다. ‘우리가 받아들이는 과학적 지식들은 이런 반증의 시도로부터 잘 견뎌 온 것’에서 ‘견뎌’를 ‘인내’로 바꾼다면 어색해진다. 여기에 서의 ‘견뎌’는 ‘버티다’의 의미나 ‘이겨내다’ 정도의 의미로 쓰였다.

- 오답 피하기** >> ① 널리 쓰이다라는 점에서 사용되다로 바꿀 수 있다.
② 검지 않은 까마귀가 있을 수 있다는 검지 않은 까마귀가 실재할 수 있다고 바꿀 수 있다.
③ 참임을 보여 주다는 참임을 입증하다로 바꿀 수 있다.
⑤ 반증 가능성이 없는 지식은 반증 가능성이 전무하다로 바꿀 수 있다.

[25~28] (예술)

25 세부 내용 확인하기 ①

첫째 문단에서 ‘영화는 사진에 결여되었던 사물의 운동, 즉 시간을 재현한 예술 장르이다’라고 하였으므로 ①은 적절하다.

- 오답 피하기** >> ② 첫째 문단에서 ‘만화는 공간이라는 차원만을 알고 있다’고 하였으므로 만화가 영화보다 물리적 시간 재현이 충실하다고 한 ②는 적절하지 않다.
③ 둘째 문단에서 ‘영화에서는 이미지를 영사하는 속도가 일정하여야’라고 하였으므로 ③은 적절하지 않다.

- ④ 셋째 문단에서 '사진적 원리에 따른 영화 이미지 생산 과정'을 말하고 있으므로 사진적 원리에 따라 만들어진 것은 만화 이미지가 아니라 영화 이미지이다. 따라서 ④는 적절하지 않다.
- ⑤ 넷째 문단과 마지막 문단에서 영화와 만화를 비교하면서 영화가 '사물에 대한 사실적인 기록'인 반면 만화는 '구상을 실행으로 옮기는 단계가 현실을 매개로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만화가 영화보다 사물을 더 사실적으로 기록한다는 ⑤는 적절하지 않다.

26 반응의 적절성 파악하기 ④

넷째 문단을 보면 '영화는 실제 대상과 이미지가 인과 관계로 맺어져 있어 본질적으로 사물에 대한 사실적 기록'이라고 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촬영된 이미지들을 디지털 특수 효과를 통해 수정한다고 했으므로 이는 앞에서 말한 실제 대상과 이미지 사이의 인과 관계가 약화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것이 ④이다.

- 오답 피하기** >> ① 디지털 특수 효과를 쓰면 실재하지 않는 대상이나 장소도 만들어 낼 수 있으므로 제작 주체가 의도하는 대로 이미지를 만들기가 더 쉬워진다.
- ② 디지털 특수 효과를 쓰면 실재하지 않는 대상이나 장소도 만들어 낼 수 있으므로 영화 촬영장의 물리적 환경의 영향이 약해진다.
- ③ 디지털 특수 효과를 쓰면 실재하지 않는 대상이나 장소도 만들어 낼 수 있으므로 촬영된 이미지에만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
- ⑤ 디지털 특수 효과를 쓰면 만화에서와 마찬가지로 실재하지 않는 대상이나 장소도 만들어 낼 수 있으므로 영화에 만화적 상상력을 도입하기가 더 쉬워진다.

27 구체적 사례 적용하기 ③

효과선을 지운다 해도 인물이 달리는 동작의 이미지는 그대로 남는다. 따라서 인물의 움직임은 상상하게 하는 요소가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 오답 피하기** >> ① 둘째 문단에서 언어적, 비언어적 정보를 모두 담을 수 있는 만화의 자유로움이 독자의 읽기 시간에 변화를 준다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 ② '파당'이라는 언어적 정보와 인물의 머리 위에 별 모양의 그림으로 표현된 비언어적 표현을 통해 작중 상황을 부각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④ 셋째 문단에서 세계에 대한 작가의 해석이 특유의 스타일과 터치로 나타난다고 했으므로 <보기> 속 인물들의 얼굴과 몸의 형태를 통해 만화 이미지가 '서명된 이미지'임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하다.
- ⑤ 둘째 문단을 통해 영화의 프레임과 달리 만화의 칸이 유연함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하다.

28 어휘 구성 방식 이해하기 ③

'피'는 '주머니'에 담을 수 있는 사물이 아니므로 <보기>에서 말하는 서로 담고 담길 수 없는 것들이 한데 묶인 단어에 해당한다.

- 오답 피하기** >> ① '국'은 '그릇'에 담길 수 있는 사물에 해당한다.
- ② '기름'은 '통'에 담길 수 있는 사물에 해당한다.
- ④ '물'은 '병'에 담길 수 있는 사물에 해당한다.
- ⑤ '쌀'은 '가마니'에 담길 수 있는 사물에 해당한다.

[29~31] (과학)

29 세부 정보 확인하기 ⑤

둘째 문단에서 실제 기체의 분자 간 상호 작용은 대부분 인력에 의해 일어나는데, 인력은 분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 감소한다고 했으므로 거리에 상관없이 일정하다고 한 ⑤는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피하기 >> ① 첫째 문단에서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할 때 온도를 높이면 부피는 증가한다'라고 하였다.
② 첫째 문단에 이상 기체의 개념이 제시되어 있다.
③ 넷째 문단에서 실제 기체의 분자 자체 부피와 분자 사이의 인력에 의한 압력 변화를 고려한 반데르발스 상태 방정식을 보면, 분자 간 상호 작용에 해당하는 인력이 기체 압력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④ 둘째 문단에서 실제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면 인력의 영향은 줄어들음을 확인할 수 있다.

30 내용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⑤

셋째 문단에 따르면 자유 이동 부피는 기체 분자가 운동할 수 있는 부피이므로 용기의 부피가 같다면 자유이동 부피 역시 ㉠과 ㉡에서 같다고 보아야 한다.

- 오답 피하기 >> ① ㉠과 ㉡ 모두 기체의 압력, 온도, 부피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방정식이다. 다만 ㉠은 이상 기체를 가정한 것이고 ㉡은 실제 기체를 가정한 것이다.
② 마지막 문단에서 ㉡은 실제 기체의 분자 자체 부피와 분자 사이의 인력에 의한 압력 변화를 고려하여 이상 기체 상태 방정식을 보정한 것이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③ ㉠은 이상 기체라는 가상의 기체를 가정한 것으로 단순한 모형에 해당하고 ㉡은 실제 기체에 이를 적용하기 위해 ㉠을 수정한 것이므로 적절하다.
④ 넷째 문단에서 분자의 자체 부피를 b 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31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기 ②

〈보기〉에서 압력이 P_1 과 P_2 사이일 때, 같은 압력일 경우 A가 B에 비해 부피가 작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부피가 작다는 것은 기체 분자 사이에 상대적으로 반발력보다 인력이 크게 작용함을 의미하므로 ②는 적절하다.

- 오답 피하기 >> ① 압력이 P_1 에서 0에 가까워질수록 부피는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둘째 문단에서 인력은 분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 감소한다고 했으므로 부피가 증가하면 A와 B 모두 분자 간 상호 작용이 감소함을 알 수 있다.
③ 압력이 P_2 와 P_3 사이일 때 A는 이상 기체에 비해 부피가 크고 B는 이상 기체에 비해 부피가 작다. 이상 기체는 분자 간 상호 작용인 인력과 반발력을 고려하지 않은 기체이므로 이보다 부피가 크다는 것은 인력보다 반발력이 큼을 의미하고, 이상 기체보다 부피가 작다는 것은 반발력보다 인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A와 B 모두 반발력보다 인력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이 아니라 A만이 반발력보다 인력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고 할 수 있다.
④ 압력이 P_3 보다 높을 때 A가 B에 비해 부피가 작으므로 반발력보다 인력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고 볼 수 있다.
⑤ 둘째 문단에서 실제 기체의 부피는 압력을 아무리 높이더라도 이상 기체에서 기대했던 것만큼 줄지 않는다고 하였으므로 부피가 0이 될 수는 없다.

[32~35] (현대시)

32 공통점 파악하기 ⑤

(가)에서는 ‘떨어진다’, ‘곧은 소리’와 같은 어구를, (나)에서는 ‘흔들리면서’, ‘흔들려서’, ‘흔들리고’와 같은 유사 어구를, (다)에서는 ‘내 마음의 고향은’, ‘있지 아니하고’와 같은 어구를 반복하면서 시적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 오답 피하기 >> ① (나)는 목적어에 해당하는 부분을 ‘피하지 마라’ 뒤에 도치시키고 있고, (다)는 부사어에 해당하는 시행을 뒤에 도치시키고 있다. 그러나 (가)에서는 도치의 방식으로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지 않다.
- ② (나)에서는 ‘피하지 마라’와 같이 명령적 어조를 활용하고 있지만 (가), (다)에서는 명령적 어조를 활용하지 않고 있다.
- ③ (다)의 ‘대숲(초록색) 마을’의 ‘노오란 초기울의 초가지붕’과 ‘흰 옷자락’, ‘파르리한 웃고름’에서 색채의 대조가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가), (나)에는 색채의 선명한 대조가 드러나 있지 않다.
- ④ (가), (나), (다) 모두 영탄법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

33 외적 준거를 이용하여 감상하기 ③

(가)의 소리는 ‘곧은 소리’로 시적 화자에게 각성을 촉구하는 긍정적 소재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시적 화자가 이에 부정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피하기 >> ① (가)의 ‘고매한 정신처럼’에서는 <보기>에서 김수영이 주목한 ‘위대성’을 읽을 수 있다.
- ② (나)의 ‘슬픔 하나’, ‘고독 하나’, ‘고통 하나가 자기를 헤집고 있다’는 표현은 <보기>에서 말한 사물에 대한 고정된 인식이나 관념에서 탈피하고자한 오규원의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
- ④ (나)의 화자는 흔들리며 살아 있는 것들을 자신과 동일시하며 시의 끝에서 ‘우리가 늘 흔들리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 ⑤ (가)의 폭포가 지닌 송고한 면모와, (나)의 대상이 지닌 흔들린다는 동적인 속성은 <보기>를 통해 자유와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34 시상 전개 과정 이해하기 ③

(다)에 고향의 특정 인물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 오답 피하기 >> ① ‘참새 떼’, ‘초가지붕’, ‘짚벼늘’ 등 고향에서의 삶과 관련된 소재들이 열거되어 있다.
- ② ‘후두둑’의 청각적 이미지, ‘노오란’의 시각적 이미지 등 다양한 감각적 심상을 활용하였다.
- ④ 시의 끝을 ‘수레바퀴 자국을 뒤에 남기며’라고 종결함으로써 시적 여운을 남기고 있다.
- ⑤ ‘내 마음의 마음의 고향은 ~ 내가 그 어둑한 신작로 길로 나섰을 때 끝났다’는 부분을 통해 고향에 대한 상실감을 읽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시적 화자의 그리움을 담아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5 시구 이해하기 ①

‘계절과 주야’는 모두 시간을 의미한다. ‘가리지 않고’는 시간 흐름에 구애받지 않고의 의미이다. 따라서 이 시행은 폭포가 끊임없이 떨어진다는 낙하의 항상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 오답 피하기 >> ② ‘나타와 안정’은 ‘폭포’에 의해 뒤집어져야 할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정적 속성으로 보아야 한다.
- ③ ‘빈 들’은 ‘우리가 흔들리고 있음을’ 깨닫는 공간이다. 따라서 화자와 공동체가 화합을

이루는 공간이라 볼 수 없다.

- ④ 화자는 '노오란 초가을의 초가지붕'에 있고 싶어 하고, '고요 적막한 뒤란'에 있고 싶어 하기 때문에 절망적인 상황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
- ⑤ 화자가 마음으로 고향을 그리워 하지만 더 이상 과거의 고향을 마음 속에 담을 수 없음을 '수레바퀴 자국'은 눈 위에 얼어붙고 있는 상황으로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화자가 지향하는 미래를 표상한다고 볼 수 없다.

[36~38] (언어)

36 설명 방식 파악하기 ⑤

이 글은 중심 대상인 '어미'를 '조사', '접미사'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들어 설명하고 있다. '어미'와 '조사'의 공통점은 독립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는 것이고, 차이점은 '어미'는 별도의 품사로 인정하지 않지만 '조사'는 품사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어미'와 '접미사'의 공통점 역시 독립적으로 쓰일 수 없다는 것이고, 차이점은 '어미'는 새로운 단어를 형성하지 못하지만 '접미사'는 새로운 단어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37 미루어 짐작하기 ②

둘째 문단에 '어미는 항상 어간과 결합하여 쓰인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조사와 마찬가지로 선행 요소와 분리되어 쓰일 수 있다는 이해는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피하기** >> ① 첫째 문단에 용언은 어간과 어미로 이루어진다고 되어 있고, 용언은 여러 문장 성분으로 쓰인다는 정보가 있다. 이를 통해 용언은 어간과 어미가 결합되어 문장 성분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을 이끌어 낼 수 있다.
- ③ 둘째 문단에 학교 문법에서 '어미'는 별도의 품사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 ④ 셋째 문단에 평서형 종결 어미 '-다'가 결합한 기본형만을 표제어로 등재한다고 되어 있다.
 - ⑤ 셋째 문단에서 어미들이 결합하더라도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서술되어 있다.

38 사례의 적절성 판단하기 ④

'놓이-'는 '놓-'에 피동 접미사가 '-이-'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것은 적절하나 품사가 달라진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㉔의 예로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피하기** >> ① '지나가는'은 '지나가'에 관형사형 어미 '-니'가 결합하여 뒤에 오는 선어를 수식하는 관형어로 쓰였으므로 적절하다.
- ② 어간 '만나'와 어미인 '-았-', '-어'가 모두 문장 내에서 독립적으로 쓰일 수 없으므로 ㉔의 예로 볼 수 없다.
 - ③ '병원에'에서 조사 '에'를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㉔의 예로 적절하다.
 - ⑤ 어미 '-고'는 '적정하'를 비롯한 다양한 어간에 붙을 수 있지만 피동 접미사 '-이-'는 '적정하'에 붙을 수 없으므로 결합이 제약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㉔의 예로 적절하다.

[39~42] (사회)

39 미루어 알기 ③

이 글의 정보를 바탕으로 새로운 정보를 도출할 수 있는가를 묻고 있다. 공적 연금을 실시하는 이유는 사적 연금이나 공공 부조가 낳은 부작용 때문이라고 처음 두 문단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즉 공공 부조가 낳는 도덕적 해이라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공적 연금을 실시한다고 하여 공공 부조는 폐지해야 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 오답 피하기** >> ① 연금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은 사적 연금이나 공공 부조가 있다고 하였다.
 ② 공적 연금은 사적 연금의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기는 하나 사적 연금을 금지하지는 않는다.
 ④ 둘째 문단을 보면 공공 부조가 낳는 도덕적 해이는 결국 성실한 국민의 납세 부담을 증가시킨다. 공공 부조는 첫째 문단에 제시된 바와 같이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⑤ 셋째 문단을 통해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40 핵심 정보 비교하여 이해하기 ①

공적 연금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부딪치는 두 입장에 대한 이해력을 묻고 있다. 마지막 문단을 보면 사회적 연대를 중시하는 입장에서는 공적 연금 제도를 ‘국민 전체가 사회 발전을 위해 조성한 투자 자금으로 보고’라고 하였다. 따라서 정답은 ①이다.

- 오답 피하기** >> ② 경제적 성과를 중시하는 입장이다.
 ③ 마지막 문장을 보면 사회적 연대를 중시하는 입장에서는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④ 소득 재분배는 사회적 연대를 중시하는 입장이다.
 ⑤ 보험료를 낼 소득자 집단을 확충하자는 주장은 사회적 연대를 중시하는 입장이다.

41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⑤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여 이 글을 이해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다. <보기>의 (가)는 공적 연금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움을 보여 주는 사례이고, (나)는 역선택의 사례를 보여 주고 있다. 이 두 정보를 바탕으로 소득이 있는 국민들을 공적 연금에 강제 가입시키는 제도를 완화해야 한다고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가)와 (나)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공적 연금을 강화해야 하는 것이다.

- 오답 피하기** >> ① 공적 연금 보험료를 내야 할 세대가 고용이 불안정하면 보험료를 낼 수 없다. 따라서 연금 기금을 이들의 일자리 창출에 활용하는 것이 보험료를 낼 집단을 확충하는 데에 유익하다.
 ② 역선택에 의해 보험료를 내지 않는 이들이 많은 것은 국가가 징수 업무를 철저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③ 고소득자의 고의 체납은 자신은 공적 연금을 통하지 않고 노후 보장이 가능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것이 역선택이다.
 ④ 공적 연금 보험료를 내야 할 세대가 고용이 불안정하여 체납을 하고 있고, 고소득자가 보험료를 체납하는 것은 공적 연금의 고갈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함을 보여 준다.

42 사전적 뜻풀이 이해하기 ①

단어의 사전적 뜻을 알고 있는지를 묻고 있다. ‘도모’는 ‘어떤 일을 이루려고 대책과 방법을 꾀함’의 의미로 풀이된다. ‘어떤 시기나 기회가 닥쳐 옴’은 ‘도래(到來)’의 의미다.

- 오답 피하기** >> ② ‘야기는 ‘이제 와서 그 문제를 다시 거론한다는 것은 곧 새로운 불화의 야기일 뿐이다’와 같이 쓸 수 있다.
 ③ ‘경향은 ‘사람들은 기차를 탈 때 창가 자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로 쓸 수 있다.
 ④ ‘조성’은 ‘현재 대규모 공업 단지의 조성이 추진되고 있다.’와 같이 쓸 수 있다.
 ⑤ ‘확충’은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 활동을 위한 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와 같이 쓸 수 있다.

[43~45] (기술)

43 사실적 내용 확인하기 ③

셋째 문단 마지막 부분에서 '사람마다 다른 특성을 보이는 정보는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으므로, '개인의 독특한 목소리'는 '특징 벡터'로 사용하기에 적당하다는 것이 글과 일치하지 않는다.

- 오답 피하기 >>
- ① 첫째 문단에서 '사람의 말은 음소들의 시간적 배열로 볼 수 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② 둘째 문단에서 '먼저 입력된 신호에서 잡음을 제거한 후 음성 신호만 추출한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④ 넷째 문단에서 '각 음소 추정 구간에서 추출된 특징 벡터를 구간 순서대로 배열하여 입력 패턴을 생성한다.'라고 직접 언급되어 있다.
 - ⑤ 마지막 문단에서 '~ 그중 최소값이 되는 기준 패턴을 선정한다. 최종적으로 이 기준 패턴에 해당하는 문자열을 ~ 출력한다.'라고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다.

44 원리의 이해 및 적용하기 ③

예를 들고 있는 다섯째 문단에서 '기준 패턴의 음소 개수가 2개라면, ~2개의 음소 추정 구간을 설정하고, 이로부터 입력 패턴을 생성한다.'라고 언급되어 있다. 따라서 기준 패턴의 음소 개수가 2개면 조합되는 음소 추정 구간 배열도 2개라고 해야 한다.

- 오답 피하기 >>
- ① 다섯째 문단에 '기준 패턴의 음소가 3개라면, 3개의 음소 추정 구간으로부터~'에서 직접 언급되어 있다.
 - ② 다섯째 문단 말미에 패턴 거리는 결국 여러 개 중에서 최소값을 그 기준 패턴에 대한 패턴 거리로 정한다고 언급되어 있다. 따라서 최소값은 2개일 수 없으므로, 1개라는 말은 적절하다.
 - ④ 다섯째 문단에서 '기준 패턴의 음소가 2개이면, 2개의 음소 추정 구간 배열을 설정한다고 하였고, 이에서 입력 패턴을 생성한다고 하였으므로 2개가 생성될 수 있다.
 - ⑤ 다섯째 문단 마지막에서 '만일 기준 패턴의 음소가 3개보다 크면, 두 패턴을 일대일로 대응시킬 수 없어 비교가 불가능하다.'라고 직접 언급되어 있다.

45 원리의 이해 및 적용하기 ④

여섯째 문단에서 단위 구간의 시간 간격을 짧게 하면 오류를 줄일 수는 있지만, 연산량이 많아져 처리 시간이 길어진다고 하였다. 따라서 단위 구간의 시간 간격의 감소는 처리 시간을 증가시킨다고 보아야 한다.

- 오답 피하기 >>
- ① 셋째 문단에서 정보의 가짓수는 연산량의 증가로 처리 시간을 늘린다고 하였다. 따라서 가짓수가 감소하면 처리 시간 역시 줄어든다.
 - ② 여섯째 문단에서 '그 개수를 늘리면 ~ 시간이 길어진다.'라고 나와 있다. 개수의 감소는 시간이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③ 저장된 기준 패턴의 가짓수가 많을수록 패턴 거리를 구하고, 최소값을 구하는 과정을 더 많이 거쳐야 하므로 처리 시간은 길어질 수밖에 없다.
 - ⑤ 음소 추정 구간이 적다는 얘기는 패턴 거리를 구해야 하는 작업 자체가 적다는 얘기이므로 처리 시간은 짧아지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46~50] (갈래 복합)

46 작품 간 비교 및 대조하기 ②

(가)에서는 '구름과 숲' 등의 대비와, (다)에서는 자연의 여러 요소와 '세속적인 것'들 간의 대비를 통해 탈속적이고 고고한 삶을 지향하고 있다.

- 오답 피하기 >> ① 두 작품 모두 정경 묘사보다는 개인적 정서를 드러내며 작품을 시작하고 있으므로 선경 후정이라 보기 힘들다.
③ (나)와 (다) 모두 봄이라는 시간적 배경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삶의 무상감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④ (가)에서는 학을 '진선'으로 설정하고 대화를 나누는 가상의 상황을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나)와 (다)에서는 모두 가상이나 환상적 배경으로 드러나 있지 않다.

47 시어에 대한 이해 및 감상하기 ④

'손인지 주인인지 다 잊어버렸구나'라는 표현은 주객이 구분되지 않는 상황을 표현하는 것으로 시적 화자의 소외감이 아니라 오히려 일체감을 드러내는 표현으로 보아야 한다.

- 오답 피하기 >> ① '한기를 보며, 영웅 호걸을 떠올리면서 시적 화자는 무상감을 느끼고 있다.
② '시운'이 '일락일배'하는 데에서 시적화자는 역사의 영광과 고난을 깨달으며 무상감을 느끼고 있다.
③ '고불의 조장이 가장 높다'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한 감상이다.
⑤ '손이 '주인'더러 '그대 그인가'라고 하였으므로, 손의 말을 빌려 '주인'을 '진선'이라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주인'을 '진선'이라 하였으므로 탈속적인 삶에 대한 흠모라 볼 수 있다.

48 유사한 의미의 시어 찾기 ②

(가)의 화자는 '세사'가 험하다고 하면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나)에서 화자가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는 것은 나와 같이 놀러 가지 않고 벗들이 추구하는 '중시 급제' 밖에 없다.

- 오답 피하기 >> ㉠, ㉡, ㉢, ㉣ 모두 화자가 즐기거나 지향하는 대상으로 등장하고 있다. 화자가 부정적 태도가 드러나지 않는다.

49 외적 준거를 통해 감상하기 ④

제3수의 종장과 제4수의 초장이 일상적 관용 어구인지가 불분명하기도 하지만, <보기>에서 언급했듯이 일상적 관용 어구는 생활상을 사실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했는데, 선지에서는 '엄숙한 분위기를 자아낸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피하기 >> ① 1, 3, 5수는 남산에 놀러가는 사람이 화자이며, 2, 4수는 약속을 어기고 가지 않으려는 사람들이므로 화자의 교체를 통해 극적 요소를 가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1수에서 남산에 가자고 하자 2수에서 과거 급제를 변명으로 가지 않는다고 하며, 3수에서 다른 친구들에게 우리끼리 가자고 하자 4수에서 집에서 아기를 배위에 올리고 놀겠다며 거절한다. 따라서 입장 차이에 반복적 구조에 의해 드러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1수와 5수에서 놀러가겠다는 의지는 반복적으로 강하게 드러냄으로써 주제가 강조되고 있다.
⑤ 방안에 누워서 아기랑 노는 모습이 사실적으로 드러나 있다.

50 시어에 대한 이해와 감상하기 ②

이 작품에서 '신록'은 시적 화자가 위치해 있는 공간이며, 이를 고고하다고 한 것은 예찬한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따라서 접근하기 힘든 '초월적 공간'이라 감상은 적절하지 못하다.

- 오답 피하기** >> ① 자신이 신록 가운데 앉아 있는 것을 '특권'이라 하였으므로, '기쁨'이 드러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③ '신록'에서는 '그들의 기쁨의 노래가 금시에라도~'라고 하였으므로, 이 기쁨의 노래를 화자가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신록'이 주는 느낌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신록'의 속성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라 보아도 무방하다.
- ④ 둘째 문단에서 사람 사이에서 처하기를 즐거워하는 보통 사람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 마지막 문단에서 잠깐 동안이나마 사람을 잊고 있고 싶다는 내용이 나와 있으므로 적절한 감상이다.
- ⑤ '한가지로 숨신다'에서 신록에 동화하고자 하는 시적 화자의 태도가 드러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